2026년 11월 제8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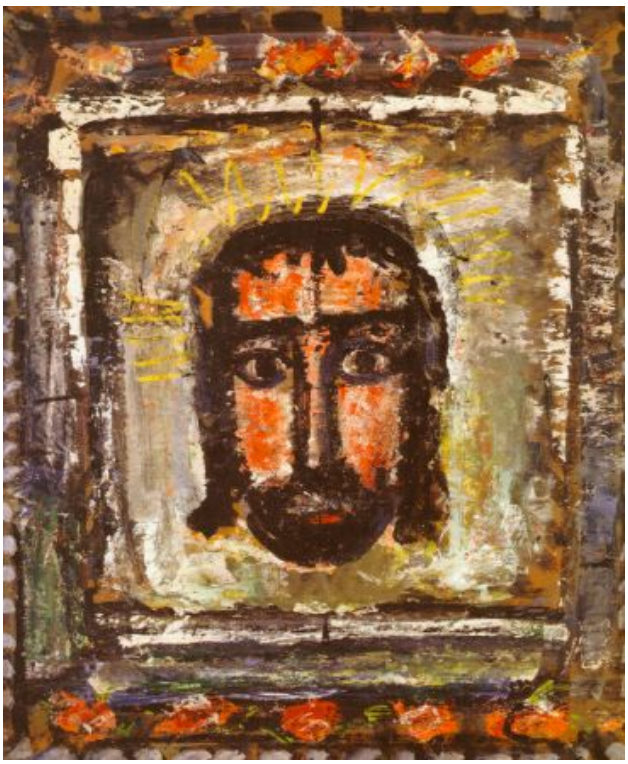
울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Pastor: Rev. Simon, Seungsoo Oh
편집: 본당 편집회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2026년 11월 22일)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1코린 15, 28)



'그리스도의 얼굴', 조르주 루오(1871~1958), 1933년, 종이를 덧댄 캔바스에 유채와 과슈, 95X61cm, 파리 퐁피두센터 소장

조르주 루오(Georges-Henri Rouault)는 프랑스의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나 스테인드 글라스의 견습공으로 그림을 시작하였다. 21세때, 베네딕토 수도회 빌레 신부의 권유로 첫 영성체를 받았고,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때까지 2000여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다. 20세기 초반 그는 야수파 운동에 참여하며 강렬한 색채와 대담한 표현을 공유했으나 자신만의 종교적, 표현주의적 화풍을 구축하며 인간의 고통, 사회적 약자, 그리고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 주제에 몰두한 프랑스의 거장이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영향을 받은 굵고 검은 선, 자유롭고 반복적인 붓터치, 물감의 거친 질감에서 꼼꼼하게 마무리된 매끄러운 고전적 성화와는 다른 종교적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 40)

1. 시작 성가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톨릭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아 모든 민족들을 가를 것이다.

마태오 25,31-4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1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32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33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34 그때에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35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36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37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38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들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39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40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41 그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42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43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44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45 그때에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 46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로마서 10장 나눔 묵상

■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10절)

- 신앙은 혼자만의 프라이빗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담대하게 하느님 사랑을 고백하는 친구들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람임을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RC2)
-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좀 더 인격적이고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RC3)
- 의지와 행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고백이지만, 실제 삶에서 내 입으로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진실한 마음을 성실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NV2)
- 부족하지만 마음으로 믿으며, 나 자신은 한없이 부족하지만 기도를 통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을 믿습니다 (NV2)
- 반모임을 1년을 돌아보니 믿음이 한층 더 깊어졌음을 느낍니다. 반모임 안에서 새로운 이들과 친교를 나누며 삶의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병행하며 신앙적 확신이 더 커졌고, 앞으로도 기도를 이어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NV2)
- 최근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통해 기도에 더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도 기도의 힘으로 성숙하게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NV2)
- 지금 누리고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이 하느님의 크나큰 은혜입니다 (NV2)

■ "차별이 없습니다" (12절)

- 하느님 안에서 모두가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고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RC2)

■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12절)

- 나만의 주님, 우리 공동체의 주님이 아니라 카톨릭이라는 우리 천주교의 보편성과 사랑을 전하는 교리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RC2)

■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14절)

-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를 선택했습니다. 사교 모임이나 직장처럼 선포하기 쉽지 않은 곳에서는 분위기를 맞추느라 정작 필요한 말을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반성하며 용기를 내지 못했던 점을 돌아봅니다 (RC2)
-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어 선포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삶에서도 마음이 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듯이, 선포도 같은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C2)

■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14절)

-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를 선택했습니다. 성당을 오래 다녔지만 아직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이 말씀이 믿음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 같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RC2)

■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15절)

- 요즘 화가 많이 나고 마음이 어두웠는데, 남을 탓하고 불평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반성합니다. 복음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던 예전의 마음을 되찾아, 앞으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RC2)
- 외부 신부님들의 특강을 들으며 신부님들의 말씀과 삶 안에서 성령의 현존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들의 열정적인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쁨과 감동을 전해 주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BL)

■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17절)

-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신앙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제가 듣는 것에서 시작됨을 깨닫고,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들으려 노력하겠습니다 (RC2)
- 하느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고 반복해서 들을 때 자연스럽게 깊은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NV2)
- 신부님 강론이나 가르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보이는 만큼, 그리고 깨닫게 되는 만큼 삶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NV2)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였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셀라 성가집 302번 “주님은 나의 목자” 1절을 부르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가랑비에 젖듯이 ..." 마음에 스며든 은총

미중북부 꾸르실료 사무국(지도신부 윤기성 미카엘) 주관 제18차 여성 꾸르실료가 지난 9월 4일부터 7일까지 Barrington의 Bellarmine Jesuit Retreat Center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미중북부 여성 꾸르실료는 참가자 26명과 지도신부를 비롯하여 시카고 지역 4개 성당과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성당에서 온 20명의 봉사자가 함께했습니다.

꾸르실료는 신앙인들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며, 신앙의 기쁨과 공동체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돕는 가톨릭 평신도 신앙운동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참가자가 열린 마음으로 꾸르실료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내가 왜 왔을까, 왜 온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닫혀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랑비에 바짓가랑이가 서서히 젖어들 듯이 3박 4일 동안 저한테도 주님의 은총이 서서히 내려왔습니다."라고 자신의 변화를 표현했습니다.

또다른 참가자는 자신을 위해 바쳐진 많은 이들의 기도와 사랑을 깊이 체험했다며 "저는 기도를 봤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기도와 사랑을 앞으로 다른 이들에게 다시 나누고 싶다는 마음도 전했습니다.

개인적인 고민에 대한 답을 기대하고 참가했던 한 참가자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제가 원했던 선물을 하느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셨구나."라고 깨달았다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도적 역할을 살아갈 '용기의 선물'을 받고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꾸르실료에서는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사전 지식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각자가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미리 공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참가자들 가운데도 먼저 꾸르실료를 경험한 가족이나 지인들이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섭섭했다고 말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윤기성 미카엘 지도신부는 이에 대해 꾸르실료의 과정을 미리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한 서로 간의 약속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여러 차례 언급한 또 하나의 체험은 '빨랑카(Palanca)였습니다. 자신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이들의 기도와 희생이 있었음을 깨달으며 빨랑카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윤 지도신부는 빨랑카는 자신에게 베푼 사람에게 되갚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꾸르실료에 참가할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영적인 도움으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3박 4일 동안 받은 은총을 일회적인 감동으로 끝내지 말고 팀회합과 본당 울뜨레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계속 이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3박 4일의 여성 제 18차 꾸르실료는 끝났지만,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26명의 새 꾸르실리스따들에게는 이제 가정과 직장, 본당과 공동체 안에서 받은 은총과 사랑을 살아가는 '네 번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처 : 2026년 9월 20일자 미주가톨릭평화신문 중에서(일부 생략 및 수정)

(다음 페이지에 우리 본당 교우의 후기가 이어집니다)

[제 18차 미중북부 여성 꾸르실료 참가 후기 — 강명선 루시아]

마침내, 드디어 꾸르실료 교육 피정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단순하지도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내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하였고, 시간을 내는 것을 주저하기도 하였고, “뭐가 그리 비밀스러운가”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차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들게 된 나는 이렇게 설명할수 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것에 나의 의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꾸르실료 교육에 가겠다는 신청을 한 후 얼마 있다가, 내 삶의 큰 이유이기도 했던 나의 반려묘 ‘제로’를 하늘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나에게 주었던 그의 빈자리는 너무 당혹스럽도록 컸습니다. 내 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상실감은 기도조차 원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나를 지금의 나로 다듬어 준 그를 잃은 것은 슬픔 그 이상이었습니다. 가슴에 묻고 또 묻고 행여 잊을새라... 기억하고 또 기억하던 중에 아주 무기력하게 떠나 닿은 곳이 꾸르실료 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서 떠나보낸 제로를 더 기억해야지”, “가서 촘촘히 나를 뒤돌아 봐야지”, “가서 기도 많이 해야지” 하던 나의 계획과 의지는, 꽉 채워진 꾸르실료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 제로를 기억할 틈도, 나를 뒤돌아 볼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교육 프로그램에 적응하기 시작하자 생각지도 못한 은총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총들이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가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는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정성된 마음과 사랑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과연 닿을수 있을까?”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 피정 중에 답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흔히들 얘기하던 “기도는 공짜가 없더라”라는 말에 확인을 받은 느낌 말입니다. “지치게 의심하는 너에게 확인을 시켜 주마” 하시는 나의 하느님을 마주한 것 같은 ....그런 은총이 가슴을 뛰게 하였고, 나는 그 은총에 의해 빚진 신자가 되었습니다.

결코 녹록치 않은 삶의 시간들, 제각각 다듬고 만들어 가는 순간에 하느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끼고, 또한 하느님과 함께하고자 이 시간 여기에 모인 — 그 전에는 결코 알수 없었던 — 동기들에게 소심하고 조심스럽고 관계 형성에 지독하게도 느린 성격을 지닌 나는 짧은 시간에 애틋해진 마음과 동질감이 형성되는 기적과도 같은 마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피정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나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지만, 지금 나는 하느님의 은총과 함께하는 신자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뒤이어 꾸르실료 교육을 받으실 꾸르실리스따 신자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은총의 빚을 진 신자입니다. 은총의 빚을 갚겠습니다. 제 은총의 빚을 받으세요.”

— 글 | 강명선 루시아